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몽골식약화 방지를 위한 은송의숲 만들기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대림절 제4주 】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31.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주 예수님, 빛과 어둠의 주인이시여, 당신의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거룩한 영을 보내주십시오.

매일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고요한 자리가 필요합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염려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는 주님께 이미 많은 복을 받았지만, 주님 나라에서 얻을 수 있는 완벽한 기쁨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의 현존 안에서 참된 기쁨을 맛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백성인 우리는 빛을 찾으며 아직도 어둠속을 걷고 있습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 헨리 나웨의 대림절 기도문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사60:1,2 인도자
♠ 교 독 문	118. 구주 강림(4) 다함께
♠ 영 광 송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함께
대표기도	I. 오재환 선생 II. 김재흥 목사
응 답 송	찬양대
찬 양	213(통348). 나의 생명 드리니 다함께
성경봉독	I. 눅 7:36-8:3 김제우 학생
	II. 요 2:1-8 이형숙 권사
찬 양	찬양대
말 씬	I. 기다리는 여인 이성운전도사
	II. 참 멋지신 예수 김기석 목사

찬 양	622. 거룩한 밤	다함께
♠ 봉 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잔치하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흥겨운 잔치 같은 삶을 위해 서로 돕고 격려하며 사십시오. 우리 주님이 잔치를 즐기시던 멋진 분임을 잊지 말고 사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분주한 일상에 쫓겨 참된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삶의 속도를 늦추고 주변을 돌아보며 살겠습니다. 내 작은 도움이 이웃의 큰 기쁨이 될 수 있음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선한 일에 좀더 땀 흘리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함께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선교회	성탄 축하의 밤 (금요일)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박아름 선생	염철민 학생
	김준우 목사	장영숙 전도사	전충길 집사

12월	영접위원	윤석철 김용진 정한구 최숙화 박효선 홍복선
	헌금위원	김인걸 정영선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지울 수 없는 얼굴, 예수를 기다리며

“아침에 제이와 함께 일라이어스 수사를 찾아갔다. 즐거운 나들이였다. 오전 7시 15분에 숲길을 걸어 오두막으로 갔다. 자연이 막 깨어나는 참이었다. 구름은 무겁게 깔리고 오솔길은 큰비에 쓸려 가지에서 떨어진 낙엽에 덮였다.”

헨리 나웨이가 트라피스트 수도원에서 쓴 일기를 묶어 낸 <제네시 일기> 가운데 한 토막입니다. 나웨이가 찾아간 일라이어스 수사는 이런 말을 하더군요. “비가 아름답지 않나요?” 답을 기다릴 것도 없이 그의 말이 이어집니다. “어째서 다들 비를 피하려고만 할까요? 비에 폭 젖어야 할 순간에도 왜 햇살만을 원하는 걸까요? 자녀들이 은혜와 사랑에 폭 빠지길 하느님은 바라세요. 이처럼 다채로운 경로를 통해서 그분을 느끼고 점점 더 잘 알아갈 수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도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주님의 현존을 경험하게 하시죠. 얼굴을 맞대고 하느님을 만난다면 어떤 기분이 들지 상상해보세요.”

헨리 나웨이처럼 영성작가로 유명해진 인물은 별로 없지요. 그러나 정작 나웨이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가슴 졸이고, 하버드대학에서 교수로 있으면서도 학생들의 사랑을 예일대학에 있을 때처럼 독차지 하지 못해 상처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사랑하다 거절당할까 두려워하고, 그 사랑을 지키지 못할까 속을 끓이고, 사람들 가운데서 잊혀질까 가슴을 졸이던 사람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일기를 통해, 다른 글을 통해 낱낱이 쓰고 하느님 안에서 묵상함으로써 우리네 가슴에 진동을 느끼게 했던 작가입니다.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그분’을 만끽하는 것입니다.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던 예수처럼, 하늘이 홀연히 열리며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가 믿는 아들”이라는 듣직한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그 체험이 있다면 세상의 시선을 아랑곳 하지 않고 두려움 없는 사랑을 시작할 수 있겠지요. 그 사람 하나 만나기 위해 기다리는 게 ‘대림절’입니다. 그런 사랑 한번 만나기 위해 몹시 비를 맞는 게 인생입니다.

고정희 시인은 그를 두고 ‘지울 수 없는 얼굴’이라 했지요.

“냉정한 당신이라 썼다가 지우고 / 얼음 같은 당신이라 썼다가 지우고
불같은 당신이라 썼다가 지우고 / 무심한 당신이라 썼다가 지우고
징그러운 당신이라 썼다가 지우고 / 아니야 부드러운 당신이라 썼다가 지우고

그윽한 당신이라 썼다가 지우고 / 따뜻한 당신이라 썼다가 지우고
내 영혼의 요람 같은 당신이라 썼다가 지우고
샘솟는 기쁨 같은 당신이라 썼다가 지우고
아니야 아니야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하는 당신이라 썼다가
이 세상 지울 수 없는 얼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요, 지울 수 없는 얼굴, 그대가 예수라지요. 그분은 냉정하고 따뜻합니다. 그분은 징그럽게도 기쁨을 줍니다. 그분은 무심하면서도 부드럽습니다. 얼음이며 불이고, 불편하면서도 엄마 품처럼 아늑합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번덕이 심하고 작은 일에 소심하며, 애정결핍에 인정욕구가 많아 휴대폰에 목을 매달고 삽니다. 세상의 주변에서 어정거리며, 누가 먼저 와서 말 걸어주길 갈망합니다. 그런 우리 안에서 그분도 속상하고 애달핍니다. 그래서 지워버릴 수 없는 얼굴이 되었습니다.

… 결정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에 접촉되면, 우리는 두려움 없이 다른 모든 이들을 향해 자신을 개방하게 됩니다. 상대로부터 되돌려 받아야 할 사랑이 더는 없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고, 그 사랑에게서 충분히 위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란 그 결정적 사랑을 ‘예수’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지요. 이제 비를 맞아도, 그래서 감기를 앓아도 행복합니다. 이마에 오른 열기 속에서도 그분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속옷이 젖어도 행복합니다. 그분이 이처럼 내 몸에 밀착되어 호흡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이든 상관없지요. 그분은 이대로 나를 안아주실 테니까요.

이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길은 그분을 통해 옵니다. 그분이 그랬듯이, 내가 나를 충분히 사랑해야 흠결 있는 타인에게도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그분이 흠결 있는 나를 사랑했듯이, 나 역시 흠결 있는 그들을 사랑하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헨리 나웬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지요. ‘네 고통(your pain)’에서 ‘그 고통(the pain)’으로 건너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겪는 고통이 나만 겪는 고통이라고 여기며, “나만 왜?”라고 물으며 괴로워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겪는 고통은 나만 겪는 게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고 예수는 이끄십니다. 내 고통을 넘어서 모두가 겪는 고통 때문에 십자가에 오르라고 이끄십니다. 눈길을 내게서 거두어 이웃에게로 향하라는 것입니다. 더 큰 사랑 안에서 내 상처가 말끔히 치유될 것입니다.

한상봉, <레지오 마리아> 2010년 12월호 중에서

두레반

오탁번

젓눈이 내린 겨울 아침,
쌀을 안치려고 부엌에 들어간 어머니는
불을 지피기 전에 꼭 부지깅이로
아궁이 이맛돌을 툭툭 때린다
그러면 다스운 아궁이 속에서 단잠을 잔 생쥐들이
쫓르르 달려나와 살강 위로 달아난다

배고픈 까치들이 감나무 가지에 앉아
까치밥을 쪼아먹는다
이 빠진 종지들이 달그락대는 살강에서는
생쥐들이 주걱에 붙은 밥풀을 남남 먹는다
햇좁쌀 같은 햇살이 오종종히 비치는
조붓한 우리 집 아침 두레반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원로장로 :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김아영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 헌금영수기 ◇

십일조헌금:

윤정덕 구성실 강인식 김정숙 김중수 이순정 김훈동 유경순 배근수
 김금순 서원금 임주빈 최현옥 박시내 김성한 조영순 조현권 박아영
 박병구 김정애 김민화 한상균 한상경 강순배 곽새롬 강성식 배제선
 이광용 형인순 김필순 이재문 김재흥 최희영

월정헌금:

정현희 권혁순 박혜경 김윤정 배부례 송임희 윤주원 최윤선 이성범
 권 순 박석희 조항미 구명자 이현순 배연선 이재훈

감사헌금:

정연희 강순배 박옥순 이증자 김창경 김중수 이순정 윤정덕 구성실
 심소재 김 극 최재욱 이수정 조선환 강인숙 이정은 배삼순 권호진
 박병구 김정애 박숙현 황경순 정복순 참빛찬양대 무명

녹색꿈 헌금:

장원호 박성희 최경미

생일감사헌금:

박성실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장혜숙	박성실	연합속회	심
베들레헴	노순옥	정경례		
안디옥	임정자	최경미		
가나안	문영혜	이명희		
갈릴리	안정숙	진정숙		
베다니	박홍재	곽권희		
시온	박효선	허정윤		
엠마오	최숙화	권미정		
에베소	이순정	김금순		
빌립보	이형숙	권미숙		
가버나움	안홍숙	오현정		
나사렛	정영선	백혜숙		
갈라디아	유경순	김수진		
고린도	이영란	이증자		
다메섹	박혜경	최영혜		

■ 교/회/소/식 /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선교회** : 오늘 오후집회는 선교회별 모임입니다. 이번 모임까지는 2010년 선교회 명단에 따라 모이시기 바랍니다.
2. **새교우 환영회** : 예배 후에 2010년 하반기 새교우 환영회가 중고등부실에서 열립니다.
3. **성탄축하의 밤** : 교회학교가 주관하는 성탄축하의 밤 행사가 24일(금) 저녁 7시 30분 교육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주 수요집회는 쉽니다.
4. **성탄절 예배** : 성탄 감사 예배가 25일(토)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성탄절 공동식사 당번은 속장 및 인도자입니다.)
5. **세례입교식** : 성탄 감사 예배 전 오전 10시 40분에 세례입교식이 진행됩니다. 일찍 오셔서 세례 받고 입교하는 이들을 축하해 주십시오.
6. **함께하는 성탄절예배** : 기독교 단체들이 연합으로 드리는 성탄절 예배가 '전쟁 반대 한반도 평화'라는 주제로 25일 오후 3시 광화문 감리교 회관 앞에서 있습니다.
7. **떡국떡 판매** : 25일과 26일에 여선교회에서 떡국떡을 판매합니다.
8. **하늘양식** : 2011년 <하늘양식>이 나왔습니다. 사무실에서 받아 가십시오.
9. **신앙실천** : 아무도 성탄 선물을 주지 않을 것 같은 이에게 성탄 선물을 전해보십시오.

* 식당 봉사 : 시온 속 (다음 주 : 엠마오 속)

* 설거지 봉사 : 이견식 김세진 김기성 (다음 주 : 윤석철 김대근 이준하)

* 새교우 : 심상숙 (4여) 이윤석 (3남) 박안수 (5여) 이세민 (청) 장유진 (청)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